

캠핑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과 여가제약협상의 길항 메커니즘

이유진¹

¹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The Antagonistic Mechanism Between Leisure Constraints and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Based on the Serious Leisure Level of Camping Participants

Lee, Yujin¹

¹University of Seoul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way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effort justification through a satisfying camping experience within the antagonistic mechanism between leisure constraints and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To achieve this, the study examined how campers' perceptions of leisure constraints and negotiation strategies differ according to their level of serious leisure involvement. Camping participants were selected as the target population, and purposive sampling and snowball sampling methods were utilized. A total of 445 valid responses were analyzed for the final study.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7.0 and AMOS 27.0, employ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one-way ANOVA. The results indicated that as the level of serious leisure involvement increased, leisure constraints initially decreased, then increased, and eventually decreased again, exhibiting a nonlinear (curved) pattern. In contrast,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showed a linear increase as serious leisure involvement increased. Therefore, while numerous constraints may arise when beginning camping, consistent participation enhances the ability to overcome these constraints, ultimately allowing individuals to enjoy a more profound camping experience.

Key words : Camping, Serious Leisure Level, Leisure Constraints,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Antagonistic Mechanism

주요어 : 캠핑, 진지한 여가 수준, 여가제약, 여가제약협상, 길항 메커니즘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4038)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Yujin

University of Seoul, Seoulsiripdae-ro 163, Dongdaemun-gu, Seoul, Korea

E-mail: phyyujin@kangwon.ac.kr

Received: Jan, 31, 2025 Revised: Mar, 7, 2025 Accepted: Mar, 22, 202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지속하며 성장시키고 싶은 그 무엇을 여가에서 찾기 시작했다(신예은 외, 2024). 여가 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며 만족스러운 경험을 지속시키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해 나간다. 일상과 같은 행위일 수도 있는 활동을 여가화하며 색다른 경험을 탐색한다. ‘럭셔리’와 ‘미너털’, ‘낭만’과 ‘효율’, ‘가성비’와 ‘가심비’, ‘글캠핑’과 ‘노지캠핑’, ‘즉흥캠핑’과 ‘계획캠핑’, ‘솔로캠핑’과 ‘단체캠핑’, ‘감성캠핑’과 ‘실용캠핑’, ‘힐링캠핑’과 ‘액티브캠핑’, ‘우중캠핑’과 ‘설중캠핑’ 등 다양한 스타일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활동으로 자신의 스타일과 목적에 맞는 캠핑을 선택하곤 한다. 이를테면, 장소와 환경, 접근 방식, 캠핑 스타일 등에 따라 모순되는 가치가 공존하는 삶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선택 속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여가 경험의 빈도도 높아진다(이유진, 황선환, 2024).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며 마음의 여유를 찾고자 떠나는 캠핑의 묘미 이면엔 잠자리를 만들고, 밥을 지으며, 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내 집의 편안함과 소중함을 들여다보는 모순을 느낀다. 이러한 특성들이 비단 길항의 메커니즘에서만 발견되지 않고 한시적이었다가, 지속적이었다가, 복수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등 단발성 체험에 머물지 않고 반복하고 변화하면서 캠핑의 경험치가 축적된다. 이렇게 선택의 조건이 다양한 캠핑은 축적된 경험치만큼 전문화의 정도가 변화함에 따라 다채로운 특성들이 발견된다. 전문화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다른 여가, 필수 활동 등을 줄이거나 포기함으로써 특정 여가 활동에 대한 재정적, 사회적, 심리적인 투자 비용이 증가하게 한다(이

영란, 김형곤, 오치옥, 2013).

장작불의 낭만을 경험하기도 전에 캠핑을 준비하는 시작 시점에서부터 현실적인 타격감을 안게 된다. 일정 조율, 장소 결정, 장비 준비, 동반자 탐색, 기상정보, 그리고 부족한 경험치는 캠핑 준비 요건의 다양성만큼 현실적인 제약을 크게 느끼게 된다. 이처럼 여가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개인의 내적 심리상태와 특성, 그리고 외부적 상황 요인들을 ‘여가제약(Leisure constraints)’이라고 칭한다(Crawford & Godbey, 1987). 캠핑을 온전히 즐기고 싶어도 경험 부족, 환경적 불안감과 같은 내재적 제약과 동반자의 의사 및 스타일과 같은 대인적 제약, 그리고 장소 접근성,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등의 구조적 제약들로 인해 여가 실현의 걸림돌이 발생 된다. 최근 캠핑장의 다양한 선택 속성에 따라 지속적인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보고되면서, 캠핑장의 선택 속성인 서비스, 환경성, 편리성과 같은 심적 제약 측면의 중요성도 고려되고 있다(전정아, 2022).

이렇게 장소와 방식, 환경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스타일과 목적에 맞는 캠핑을 선택함으로써 여가제약 극복을 위한 협상 전략이 작동하면서 여가를 실현한다. 여가제약협상(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은 “여가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여가제약 요인과 장애물의 영향을 감소시키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여가 참여자들이 이용하는 전략”을 지칭한다(Mannell & Kleiber, 1997: p341). 시간 부족, 경제적 불안, 심리적 불안과 같이 여가제약이 강하면 여가 활동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제약을 극복하려는 협상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면 오히려 여가 활동의 참여가 증가할 수 있다. 예컨대 전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제약요인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심리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전문화 수준이 낮은 그룹에 비해 더 높아서 제약요인에 대한

인식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기울이게 된다고 하였다(이영란 외, 2013).

‘고생을 사서 하는 일’이라고 느끼는 캠핑은 자신이 큰 고생을 했거나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은 일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 심리적 현상인 ‘노력 정당화 효과(Effort Justification Effect)’가 발견된다. 사회 심리학의 인지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에서 비롯된 Leon Festinger(1957)의 ‘노력 정당화 효과’는 객관적 가치보다 더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가치를 결과에 귀속시키는 경향을 말한다. 고생스러운 활동이었으나 즐거웠던 경험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면서 난관 혹은 제약요인을 적극적으로 극복해 내려는 시도가 더 증가하게 된다. 이렇듯 여가 경험의 깊이가 누적되며 전문성이 높아지는 상태와 과정을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 ‘레크리에이션 전문화(Recreation Specialization)’의 개념에서 탐구되었다(Bryan, 1977; Stebbins, 1982). 이와 같은 용어는 캠핑 참여 형태에 대한 심도 있는 특성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개념으로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의미를 밝히고 있다(권일권, 김지태, 박상규, 2016; 김경주, 서광봉, 이철원, 2015; 김현정, 박근수, 2018; 손수곤, 김인형, 2015).

진지한 여가는 ‘아마추어나 취미가,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해당 여가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활동의 가치와 흥미를 발견하여 관련 전문기술과 지식 그리고 경험을 쌓고 표현하는 데 집중하여 경력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정의되며, 여가 활동 참여 ‘상태’를 의미한다(Stebbins, 1992). 한편, 레크리에이션 전문화는 ‘레크리에이션 참가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초보자에서부터 전문가까지 연속체를 따라 진보(progress)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여가 활동 참여의 ‘과정’을 의미한다(Bryan, 1977, p.175). 여러 선행연구에서 진지한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예:

이연주, 김미량, 2011; 황선환, 이문진, 2009; Tsaur & Liang, 2008 등)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상태’와 ‘과정’이라는 차이점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여러 각도에서 조명되어 왔다(김미량, 2019; Scott, 2012).

최근 이문진(2023)은 진지한 여가의 ‘상태’라는 특성을 구역으로 제시하고,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과정’이라는 특성을 선형으로 제시함으로써 여가 활동 참여 과정 모델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분류된 영역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미비한 실정이며, 진지함을 양적으로 측정하여 진지한 여가 ‘수준’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진지한 여가 수준이 높은 여자 야구 동호인의 경우 일과 여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 갈등 상황을 통제하거나 갈등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최락홍, 정하나, 김미량, 2024). 같은 맥락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진지한 여가 활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박태진, 최대혁, 안현균(2022)의 연구에서도 코로나 19 상황에서 여가제약을 받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여가 수준이 높은 참여자들은 여가제약을 극복하고 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자원을 이미 획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진지한 여가로서 캠핑의 본질적인 목적이 웰빙과 휴식을 증진하는 것인 만큼, 제약 요소를 관리하고 극복하는 전략을 통해 캠핑의 긍정적인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여가 수준별로 캠퍼들이 인식하는 제약요인과 협상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론적 혹은 실증적 논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제약과 협상의 길항 메커니즘 속에서 만족스러운 캠핑 경험을 통해 노력 정당화의 효율을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캠핑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캠핑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협상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이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을 승인받고 진행되었다. 캠핑 참여자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고, 목적표집법(Purposive Sampling Method)과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네이버 오피스’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진지한 여가 특성을 반영하고자 진지한

표 1.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N	비율(%)
성별	남성	228	51.2
	여성	217	48.8
나이(만)	20대	73	16.4
	30대	236	53.0
	40대	113	25.4
	50대	23	5.2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53	11.9
	전문대 졸업	86	19.3
	대학교 졸업	270	60.7
	대학원 이상	36	8.1
혼인 여부	미혼	224	50.3
	기혼	212	47.6
	기타	9	2.0
가구소득 (월)	299만 원 이하	102	23.1
	300-499만 원	198	43.9
	500만 원 이상	145	33.0
캠핑 참여 정도	캠핑 기간(년)	$M=3.65$	$SD=3.85$
	총 캠핑 횟 수	$M=26.91$	$SD=44.61$
	1년간 총 캠핑 횟 수	$M=6.27$	$SD=9.80$
	합	445	100

여가 척도에서 ‘전혀 아니다’에 응답한 자, 캠핑 참여 3회 미만인 자, 무박 캠퍼, 그리고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57부를 제외한 후, 총 445부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측정도구는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구성은 일반적 특성(5문항), 캠핑 참여 정도(3문항), 주요 변인은 진지한 여가(6문항), 여가제약(9문항), 여가제약협상(9문항)이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작된 설문 문항이 설문 대상자들에게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체육학 교수 2인, 박사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 타당도와 접합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진지한 여가 척도는 Gould, Moore, Mcguire, & Stebbins(2008)이 개발하고 김미량(2015)이 개발한 진지한 여가 척도(SLS II)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각 4문항씩 6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캠핑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전문가 회의를 거쳐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진지한 여가에 해당하는 인내, 여가 전문성, 개인적 노력, 지속적 혜택, 여가 정체성, 독특한 기풍의 6개 요인에 대하여 대표 문항 1개씩을 추출하여 6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낮음(1점)’에서 ‘매우 높음(6점)’의 6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지한 여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제약 척도는 Hubbard & Mannell(2001)이 개발한 척도를 김기웅(2020)이 활용한 척도로, 내재적, 대인적, 구조적 제약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더 많은 캠핑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 ‘나와 캠핑을 함께 할 사람과 일정이 맞지 않는다’, ‘캠핑장과 관련된 기타 시설이 부족하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의 6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제약협상 척도는 백혜진, 이충기, 김진옥(2015)이 활용한 척도로 동반자 탐색, 시간 노력, 강도조절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의 예시로는 ‘나와 캠핑을 함께 할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캠핑을 가기 위하여 돈과 체력을 비축한다’, ‘캠핑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 등이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6점)’의 6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제약협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측정변인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는 $Q(X^2 / df)$ 값 3 이하, GFI/TLI/CFI 값 .900이상, RMSEA 값 .08이하, AVE .50이상, CR .70 이상으로 설정하였고, 신뢰도는 .70 이상이면 적합하다는 Nunnally(1978)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여가제약은 CMIN/DF: 78.069/21($p=.000$), TLI=.939, CFI=.964, RMSEA=.078로 나타나 기준치가 충족되었다. 여가제약협상은 CMIN/DF: 79.771/23 ($p=.000$), TLI=.943, CFI=.963, RMSEA=.075로 나타나 기준치가 충족되었다. 또한 여가제약의 AVE=.608, CR=.822, 여가제약협상의 AVE=.500, CR=.741로 나타나 집중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표 2. 측정변인의 타당도

변인	X^2 / df	TLI	CFI	RMSEA	AVE	CR
기준	≤ 3	$\geq .90$	$\geq .90$	$\leq .08$.50	.70
여가제약	78.069/21 =3.718	.939	.964	.078	.608	.822
여가제약협상	79.771/23 =3.468	.943	.963	.075	.500	.741

또한 각 변인들의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진지한 여가 Cronbach $\alpha = .907$, 개인적제약 Cronbach $\alpha = .740$, 대인적제약 Cronbach $\alpha = .781$, 구조적제약 Cronbach $\alpha = .734$, 여가제약 전체 Cronbach $\alpha = .873$, 동반자 탐색 Cronbach $\alpha = .787$, 시간노력 Cronbach $\alpha = .747$, 강도조절 Cronbach $\alpha = .744$, 여가제약협상 전체 Cronbach $\alpha = .859$ 로 나타나 기준치가 충족되었다.

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를 위해 SPSS 27.0, AMOS 27.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주요 분석으로 one-way ANOVA(일원변량분산분석), LSD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유의수준=.05).

Ⅲ. 결과

1. 기술통계분석

연구에 투입된 주요 변인인 진지한 여가, 여가만족, 여가제약, 여가제약협상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기술통계분석

변인	Min	Max	Mean	SD	
진지한 여가	1.00	5.00	3.80	1.90	
여가제약	개인적	1.00	5.00	2.86	1.23
	대인적	1.00	5.00	2.62	1.30
	구조적	1.00	5.00	2.94	1.19
	전체	1.00	6.00	2.88	1.03
여가제약협상	동반자 탐색	1.00	6.00	3.57	1.30
	시간노력	1.00	6.00	4.13	1.14
	강도조절	1.00	6.00	4.32	1.11
전체	1.00	6.00	4.01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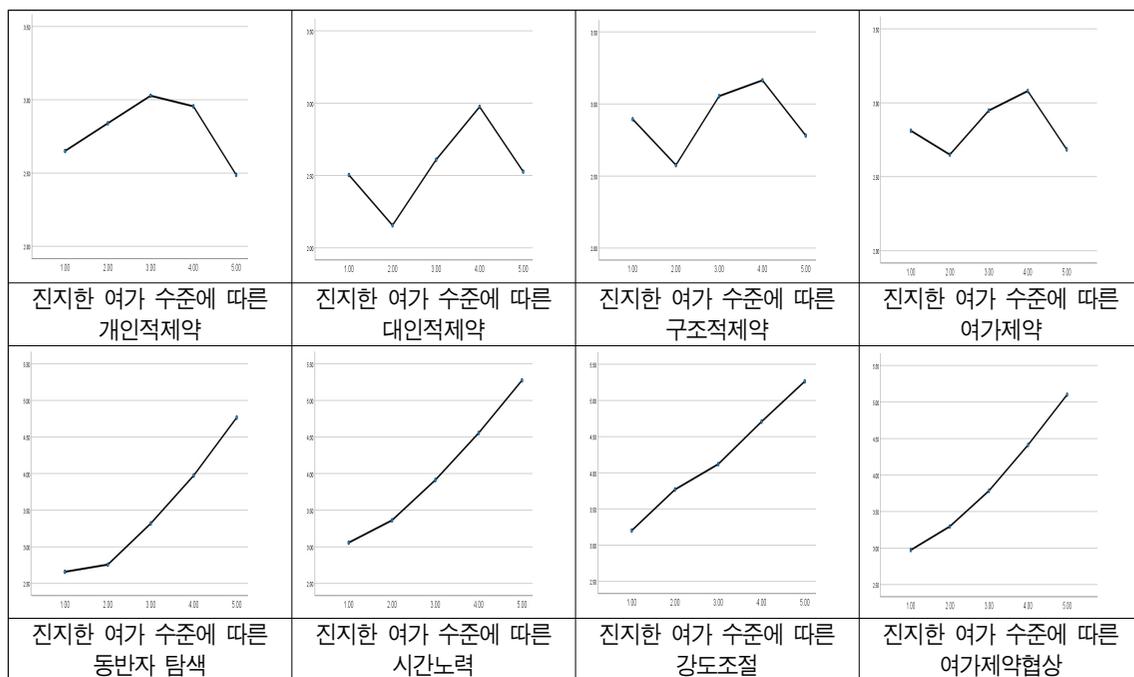


그림 1.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과 여가제약협상의 차이

표 4.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과 여가제약협상의 차이

진지한 여가	n	개인적제약		대인적제약		구조적제약		전체(여가제약)	
		M±SD	F(p)	M±SD	F(p)	M±SD	F(p)	M±SD	F(p)
1(중하)	@41	2.65±1.23		2.50±1.23		2.89±1.21		2.81±0.92	
2(중)	@81	2.84±1.13	2.635*	2.16±0.91	5.460***	2.58±0.97	3.773**	2.65±0.70	3.128*
3(중상)	@122	3.03±1.32		2.61±1.11		3.05±1.00		2.95±0.80	
4(상)	@134	2.96±1.29	@, @<@<	2.96±1.47		3.16±1.32		3.08±1.20	
5(최상)	@67	2.49±1.49		2.53±1.50		2.78±1.36		2.69±1.31	

진지한 여가	n	동반자 탐색		시간노력		강도조절		전체(여가제약협상)	
		M±SD	F(p)	M±SD	F(p)	M±SD	F(p)	M±SD	F(p)
1(중하)	@41	2.66±1.33		3.06±1.25		3.20±1.28		2.97±1.16	
2(중)	@81	2.76±1.05	43.646***	3.36±1.06	64.831***	3.77±1.13	45.446***	3.30±0.84	88.835***
3(중상)	@122	3.32±1.09		3.91±0.92		4.12±0.97		3.78±0.70	
4(상)	@134	3.98±1.06	@<@<@<@<	4.55±0.73		4.71±0.74		4.41±0.58	
5(최상)	@67	4.77±1.30		5.27±0.71		5.26±0.72		5.10±0.62	

*p<.05, **p<.01, ***p<.001

2.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 여가제약협상의 차이

첫째,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표 4>, <그림 1>. 분석결과,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개인적 제약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2.635$,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중상집단($M=3.03$)이 상집단($M=2.96$)과 최상집단($M=2.49$) 보다 개인적 제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대인적 제약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5.460$,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상집단($M=2.96$)이 가장 높고, 중하집단($M=2.50$), 중상집단($M=2.61$), 최상집단($M=2.53$)이 높았으며, 중집단($M=2.16$)의 대인적 제약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구조적 제약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3.773$,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중상집단($M=3.05$)과 상집단($M=3.16$)이 중집단($M=2.58$) 보다 높았으며, 상집단($M=3.16$)이 최상집단($M=2.78$)보다 구조적 제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협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동반자 탐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43.646$,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최상집단($M=4.77$), 상집단($M=3.98$), 중상집단($M=3.32$), 중집단($M=2.76$), 중하집단($M=2.66$) 순으로 동반자 탐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시간노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64.83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최상집단($M=5.27$), 상집단($M=4.55$), 중

상집단($M=3.91$), 중집단($M=3.36$), 중하집단($M=3.06$) 순으로 시간노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강도조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45.446$,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최상집단($M=5.26$), 상집단($M=4.71$), 중상집단($M=4.12$), 중집단($M=3.77$), 중하집단($M=3.20$) 순으로 강도조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이 연구는 여가제약과 여가제약협상의 길항 메커니즘 속에서 만족스러운 캠핑 경험을 통해 노력 정당화의 효율을 향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진지한 여가 수준 별로 캠퍼들이 인식하는 여가제약과 협상 전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구조적, 개인적, 대인적 순으로 여가제약이 높았으며,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개인적 제약은 중상집단이 상집단과 최상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은 상집단이 최상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 전체값은 대인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처음 구간(진지한 여가 수준이 낮을 때)에는 여가제약이 상대적으로 높다가 중간 구간(진지한 여가 수준이 증가할 때)에는 여가제약이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끝 구간(진지한 여가 수준이 높을 때)에서 여가제약이 다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강도조절, 시간노력, 동반자 탐색 순으로 협상이 높았으며,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여가제약협상은 모든 하위 변인(동반자 탐색,

시간노력, 강도조절)에서 최상집단의 여가제약 협상이 가장 높고, 중하집단의 여가제약협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면, 처음 구간(진지한 수준이 낮을 때)에는 여가제약협상 노력인 적었으나, 중간 구간에서 여가제약협상이 점점 증가하고, 고수준일 때 여가제약협상이 최고점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진지한 여가 수준이 증가할수록 여가제약협상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진지함을 양적으로 측정하여 진지한 여가 '수준'에 초점을 맞춰 여가제약과 여가제약협상의 패턴을 조명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이문진, 황선환, 2012; 황선환, 한승진, 2010). 또한 캠핑 전문화 수준에 따른 제약과 협상 전략의 관계는 단순히 인과적 관계가 아닌 순환적 관계로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이영란 외(2013)의 연구와도 시사하는 바가 같다. 일원 변량 분산분석은 각 수준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를 확인하고, 사후 검증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그래프의 흐름을 분석함으로써 데이터의 변화 양상을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어 패턴과 경향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변화 지점(전환점, 변곡점)을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길항의 관계가 두드러지는 점이 있는 여가제약과 여가제약협상의 메커니즘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기에 그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진지한 여가 참가자는 지속적인 여가활동 참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관(제약)들을 끈기 있게 극복해 나가는 인내심(Perseverance)을 발휘하게 된다(Stebbins, 1982).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진지한 여가 수준이 증가할수록 여가제약이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는 비선형적(곡선형) 패턴을 보였다. 중간 수준에서는 여가제약이 증가하는 구간이 존재

하는데 이는 여가에 점점 몰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진지한 여가 수준이 낮은 초보 캠퍼는 캠핑 경험이 적어 부족한 장비, 부담되는 비용, 정보의 부족 등과 같은 제약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자연환경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요령이 부족하므로 진입장벽에 대한 어려움도 크고 제약의 수준을 크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경험이 쌓이면서 정보 부족, 장비 미비와 같은 기본적인 제약은 해결되지만, 더 좋은 장비 욕구, 동반자 조율, 더 깊이 있는 캠핑 스타일로의 전환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다. 캠핑을 꾸준히 하면서 장비 구비, 기술 습득,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인해 여가제약을 대부분 극복하게 된다.

한편, 여가제약의 수준이 높으면 여가활동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있지만, 여가제약은 협상과정을 통하여 극복이 가능하다(Jackson & Rucks, 1995). 상대적으로 여가제약의 결과 패턴과는 상이하게 진지한 여가 수준이 증가할수록 여가제약협상이 일관되게 증가하는 선형적인 패턴을 보였다. 즉 여가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제약을 극복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이는 진지한 여가 참여자들이 단순히 제약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결하고 지속해서 여가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강해짐을 시사한다. 진지한 여가 수준이 낮은 초보 캠퍼는 캠핑을 가볍게 즐기기 때문에 큰 노력을 들여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본격적으로 캠핑을 즐기려다 보니 여가제약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경험치만큼 협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된다. 즉, 캠핑 방법과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되면서 대부분의 제약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가제약협상 능력이 최고점을 다다르게 된다. 결국 캠핑을 오래 지속할수록 여가제약이 줄어들며, 캠핑을 더욱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즉, 여가제약협상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여가제약을 느끼게 되어 여가 참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Hubbard and Mannell(2001)의 인지된 제약감소 모델(Perceived-Constraints Reduction Model)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캠핑을 처음 시작할 때는 캠핑의 장애 요소를 크게 느끼지만, 꾸준히 지속할수록 제약을 극복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여가제약이 감소하면서 더 깊이 있는 캠핑을 즐길 수 있다. 따라서 캠핑 입문자들을 위한 장비 대여, 정보 제공, 동호회 연결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한편, 중급 단계에서는 장비 투자, 동반자 협상, 일정 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결국 캠핑 경험이 많을수록 노력 정당화의 효율이 향상되고 만족스러운 여가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영란, 김형훈, 오치옥(2013)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인 활동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력을 정당화시키고 긍정적 자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긍정적 태도를 견지하게 된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다. 노력 정당화 과정에서 개인은 초기 어려움을 극복한 후 해당 활동을 더욱 가치 있게 여기게 되며, 이를 통해 자기 효능감(self-efficacy)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 장기적인 삶의 만족과 심리적 웰빙으로의 여정은 시간적으로 서로 다른 시점에 걸쳐 이루어지는 시간 투자 선택 행위가 자신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선택일 때 시간적으로 최적의 선택일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정현식, 1995). 이처럼 수준별로 세분화된 여가제약에 대한 인식과 여가제약협상의 차별화된 관리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V. 결론

캠핑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깊이 관

여할수록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라 여가제약과 여가제약협상 전략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진지한 여가 수준이 증가할수록 여가제약이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는 비선형적(곡선형) 패턴을 보였다. 반면에, 진지한 여가 수준이 증가할수록 여가제약협상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따라서 캠핑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꾸준히 하면 제약을 극복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더 깊이 있는 캠핑을 즐길 수 있다. 즉,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지속하며 성장시키고 싶은 그 무엇을 여가에서 찾아가며, 여가 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함으로써 만족스러운 경험을 지속시키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해 나간다.

이 연구는 진지한 여가의 '상태'를 양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데이터의 변화 양상의 경향을 파악하고, 변곡점의 존재와 선형패턴을 확인함으로써 여가제약과 여가제약협상의 길항 메커니즘을 동시적으로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횡단적 연구 설계로 이루어진 만큼, 구체적으로 제약요인과 여가제약협상의 요소가 언제, 어떻게 발견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한계가 따른다. 요컨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진지한 여가의 6개 요인에 대하여 대표 문항 1개씩을 추출하여 6문항을 사용하였기에, 캠핑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에 대한 통찰이 미비할 수 있다. 또한 캠핑유형이 다양한 만큼 여가제약과 여가제약협상의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에 캠핑 경험 과정과 더불어 개인의 성향이나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한 구체적인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캠핑 유형별 여가제약과 여가제약협상 전략의 차이를 분석하고, 개인적·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일권, 김지태, 박상규(2016). IPA기법을 활용한 도심 캠핑장 선택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4, 235-346.
- 김경주, 서광봉, 이철원(2015). 아웃도어 캠핑 참여자의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과정에 관한 근거 이론적 분석. *여가학연구*, 13(1), 29-45.
- 김기웅(2020). 목표지향적 행동모형과 여가제약 협상 모형을 활용한 프로야구 관람객의 의사결정과정.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김미량(2015). 진지한여가 척도의 재정립. *한국체육학회지*, 54(2), 313-322.
- 김미량(2019). 상태로써의 진지한 여가 수준 탐색.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3(2), 67-78.
- 김현정, 박근수(2018).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비판적 재구성: 캠핑 전문화의 방향성과 경로다양성. *관광학연구*, 42(6), 101-126.
- 박태진, 최대혁, 안현균(2022). 팬데믹 상황에서 진지한 여가 수영참여자의 여가활동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체육학회지*, 62(4), 135-154.
- 백혜진, 이충기, 김진옥(2015). 나홀로 국내 여행객의 여행제약, 협상, 태도 및 행동의도 간 구조관계 연구. *관광레저연구*, 27(1), 115-134.
- 손수곤, 김인형(2015). 캠핑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 경험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54(5), 167-178.
- 신예은, 박현영, 정석환, 유지현, 권소희, 정현아, 신수정(2024). 2025 트렌드 노트-일상의 여가화, 여가의 레벨업. 북스톤: 서울.
- 이문진(2023). 여가활동 참여과정 모형 제안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와 진지한 여가를 중심으로. *한국융합과학회지*, 12(1), 1-15.
- 이문진, 황선환(2012). 여가스포츠 참가자의 진지한 여가와 일상적 여가 구분에 따른 여가 제약과 여가제약 협상전략 분석. *여가학연구*, 10(2), 1-21.
- 이연주, 김미량(2011). 대학생의 진지한여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 몰입 및 행복의 관계. *체육과학연구*, 22(4), 2401-2411.
- 이영란, 김형곤, 오치옥(2013). 캠핑 전문화수준에 따른 제약요인인식과 제약협상전략의 차이. *관광학연구*, 37(2), 213-232.
- 이유진, 황선환(2024). 캠핑 참여자의 여가소비성향에 따른 경험적 여가 행동. *한국융합과학회지*, 13(7), 15-30.
- 전정아(2022). 캠핑장 선택속성이 캠핑 제약요인 및 캠핑 지속적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영향 관계: 캠핑형태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호텔리조트연구*, 21(5), 139-161.
- 정현식(1995). 여가 지출과 여가의 수요·공급. *사회과학*, 35(2), 303-347.
- 최락홍, 정하나, 김미량(2024). 여자야구 동호인의 진지한 여가 수준에 따른 일 여가 균형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과학회지*, 13(11), 71-89.
- 황선환, 이문진(2009). 진지한 여가와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의 관계: 스키어를 대상으로. *한국체육학회지*, 48(6), 393-402.
- 황선환, 한승진(2010). 여가제약효과완화 모델과 인지된 여가제약감소 모델 비교.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3), 161-171.
- Bryan, H. (1977). Leisure value systems and recreational specialization: The case of trout fisherme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9, 174-187.
- Crawford, D., & Godbey, G. (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 leisure. *Leisure Sciences*, 9(2), 119-127.
- Gould, J., Moore, D., McGuire, F., & Stebbins, R. A. (2008). Development of the Serious Leisure Inventory and Mea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0, 47-68.
- Hubbard, J., & Mannell, R. C. (2001). Testing competing models of the leisure constraint negotiation process in a corporate employee recreation setting. *Leisure Sciences*, 23, 145-163.
- Jackson, E. L., & Rucks, V. C. (1995). Negotiation of leisure constraints by junior-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1), 85-105.
- Mannell, R., & Kleiber, D. (1997). *A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State College, PA: Venture Pub.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Scott, D. (2012). Serious leisure and Recreation Specialization: An Uneasy Marriage. *Leisure Science*, 34, 366-371.
- Stebbins, R. (1982). Serious Leisure: A Conceptual Statement. *Pacific Sociological Review*, 25, 251-272.
- Stebbins, R. (1992).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Montreal, Quebec: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Tsaur, S. & Liang, Y. (2010). Serious Leisure and Recreation Specialization. *Leisure Sciences*, 30(4), 325-341.